이달의 으뜸중기제품 **코휠** 내구성 뛰어난 산업용 소형바퀴

캐리어·유모차 바퀴 진동 줄여 … "日·호주에 수출"

어느 날 집에서 훌라후프를 돌리던 유화열 대표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훌라후프는 지름이 꽤 큰데 힘을 줘도 부러지지 않네. 속이 비어 있어 내구성이 높으니 오래 쓸 수 있겠다.'

그는 훌라후프를 바퀴에 적용해보기로 했다.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개발은 5년이나 걸렸다. 지난해 내륜(안쪽 바퀴)과 외륜(바깥쪽 바퀴) 사이에 완충역할을 하는 빈 공간을 갖춘 '코휠 바퀴'를 내놓았다. 코휠은 '한국의 바퀴'라는 뜻이다.

◆진동과 소음 적은 소형 바퀴

코휠의 제품은 진동과 소음을 크게 낮추고 마모를 최소화한 비공기압 캐스터다. 캐스터는 소형 바퀴를 뜻한다. 바퀴는 크게 공기압 바퀴와 비공기압 바퀴로 나뉜다. 바퀴의 대명사인 자동차 타이어는 공기압 바퀴다. 바퀴에 공기가 꽉 차 있다. 잘 굴러 기능이 뛰어나지만 펑크가 날 위험이 크다. 주기적으로 제품을 교체해줘야 한다.

반면 유모차·카트 등에 사용되는 소형 비공기압 바퀴는 진동과 소음이 심하고 기능이 공기압 바퀴만 못하다. 합성수지와 강화플라스틱 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기압 바퀴보다 내구성은 뛰어나다. 유 대표는 "공기압 바퀴와 비공기압 바퀴의 장점만 결합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원리는 간단하다. 바퀴의 내륜과 외륜 사이에 플라스틱으로 빈 구멍을 촘촘하게 만든 뒤 그 위에 고무를 입혔다. 주행 중 바퀴에 압력이 가해지면 이 빈 공간이 압력을 흡수해 소음과 진동을 줄여준다.

◆기존 바퀴의 단점 극복

산업용 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유 대표는 2010년 인천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코휠을 설립했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3억원가량을 지원받아 개발비로 썼다. 그는 "5년간 수입

바퀴 안쪽과 바깥쪽 사이
빈 구멍 만들어 충격 흡수

로봇 등 적용분야 확대
타이어 등 대형바퀴도 생산

유화열 코휠 대표가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의 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없이 개발에만 매달려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 특허는 10여건 출원했다.

유 대표는 "1888년 영국의 수의사 존 던롭이 공기압 타이어를 개발한 이후 130여년 동안 대부분의 바퀴는 이런 원리였다"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원천기술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을 선보였다"고 강조했다. 코휠 바퀴 가격은 개당 1만원으로 기존 제품과 비슷하다. 하지만 소음 등이 적은 데다 잘 마모되지 않아 다른 제품보다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대형 바퀴도 생산 계획"

소형 바퀴가 쓰이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운반용 카트를 비롯해 여행용 가방, 유모차, 사무실 의자, 병원 침대, 스케이트 보드 등 생활 곳곳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여행용 가방업체와 가구업체, 유아용품 업체 등이 코휠 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유 대표는 "진동과 소음이 적어 로봇산업에 적합한 바퀴라는 평가도 받았다"며 "물류를 비롯해 반도체, 전자, 이동기기 시장 등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및 호주 업체와 수출상담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휠은 소형 바퀴를 주로 생산하지만 앞으로 타이어 등 대형 바퀴 생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유 대표는 "그동안 국내 소형 바퀴시장은 독일 일본 미국 등 해외 업체들이 장악해왔다"며 "우수한 성능의 제품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바퀴 전문회사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인천=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도어캡-윈도우벨 (031)505-3240 △연진INC-테이프절단기 '텐도' (02)6258-5588 △창성실리콘-실리콘파워락 (02)869-0123 △코휠-저진동, 저소음 비공기압 바퀴 (032)765-7737

파리바게뜨 등 '대기업 빵집' 신도시선 새 매장 열 수 있다

〈'500m 거리제한' 면제〉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동반委, 8개 품목 연장
출점 제한은 3년 더 적용

앞으로 3000가구 이상 신도시에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 입점이 허용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내 신규 출점도 가능해진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과점업과 서적·잡지류 소매업 등 이달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기한이 끝나는 8개 품목의 재지정을 가결하면서 이 같은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점포 수 2% 제한도 동네 빵집 상황이 좋아지면 이를 완화하자는 데 합의했다"며 "기존보다 훨씬 융통성 있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기존 합의대로 신설 점포 수를 전년도 말 기준 2% 이내로 제한하는 '2% 규정'을 유지했다.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은 인근 중소 제과점과 도보 500m 거리를 지켜야 하는 '500m 거리 제한'도 유지했다.

하지만 일부 예외 규정이 허용됨에 따라 SPC그룹, CJ푸드빌 등의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점포 확대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000가구 이상 아파트가 새로 건설되거나, 철길 또는 왕복 8차선 도로로 구역이 나뉘어 기존 상권과 확연히 구분되는 신도시 지역은 '500m 거리 제한'에서 면제되기 때문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호텔 내에 출점할 때도 '점포 수 2%, 500m 거리 제한'에 예외를 인정받는다.

동반위는 이날 회의에서 서적·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산(酸)식물 소매업, 플라스틱 봉투 등 7개 품목은 대기업의 진입을 규제하는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은 적합업종보다 한 단계 낮은 시장감시 품목으로 규제 수위를 낮췄다. 이날 8개 적합업종 및 감시품목은 3년 후인 2019년 2월29일까지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은 단 한 차례의 연장만 가능하다.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업과 관련해 동반위는 실질적 상생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대기업의 상생협약 참여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플라스틱산업 분야 동반성장 협약도 맺었다. 대기업계를 대변하는 석유화학협회는 중소기업계를 대변하는 한국프라스틱조합연합회에 기술 개발과 관리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연장된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품목	제과점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플라스틱 봉투
시장감시 품목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강호갑 중견련 회장 연임 … "규제 타파 나설 것"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강호갑 회장(사진)의 연임을 확정했다.

강 회장은 2013년 2월 취임한 이후 중견기업특별법 제정과 중견련 법정단체 출범,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이끌어 중견기업의 위상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새 임기는 2019년 2월까지다.

중견련은 이날 총회에서 회원사에 중견기업 법·제도 개선과 중견기업계 소통, 회원사 지원 강화 등 올해 중점 사업을 설명했다. 중견련은 대(對)국회·정부 협의체를 확대해 중견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발굴과 경영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인수합병(M&A)지원센터와 명문 장수기업 센터도 연계 운영한다. 이달 말에는 서울 마곡지구 '중견기업 글로벌 R&D 복합센터' 설립을 위한 수요조사와 사업설명회를 연다.

중견련은 업계의 소통 강화를 위해 이날 '중견련 앱(응용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모바일 앱을 통해 회원사의 애로사항과 의견, 중견기업 정책현안, 중견기업계 뉴스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우수 중견기업 채용정보도 제공한다. 강 회장은 "중견기업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대·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인식에 따른 법과 제도의 한계는 여전하다"며 "한국경제의 허리역할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우수中企 제품, T커머스 판로 확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SK브로드밴드는 23일 서울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신명수 중소기업유통센터 판로지원사업본부장(왼쪽 두 번째)과 유창완 SK브로드밴드 미디어사업본부장(세 번째)이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제공

슈프리마, 초소형 모바일 지문인식 솔루션

바이오인식 전문업체 슈프리마(대표 송봉섭)가 새로운 모바일용 지문인식 솔루션 '바이오사인(BioSign)'을 23일 선보였다.

바이오사인은 기존의 스마트폰용 최소형 센서면적(25㎟)을 36% 줄인 것이다.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지문센서 면적을 축소했기 때문에 스마트폰 제조사는 센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슈프리마 측은 "센서 크기가 작을수록 지문인식 성능이 떨어져 센서를 소형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 같은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더 작은 크기의 센서에서 뛰어난 인식 성능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메모리 용량도 경쟁사 센서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반면 인증 속도는 두 배 늘어 성능이 떨어지는 저사양폰에도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7호선 신중동역 1분
헤리움오피스텔 분양
수익률 10%보장
1,300만 투자로 6개월 내
프리미엄 200만 이상 보장
문의 032-323-5666

모델 급 매각
① 부천 오정구 원종동 (상업지역)
대지 : 172㎡ 건평 : 564㎡ 지상 : 5m 객실:19개
매가 10억원 (직영가능) / 보증금 1억5천 / 월 250만
② 특A급 무인텔 : 충주시 성서동 (중심상권)
대지 : 753㎡ 건평 : 1,127㎡ 4/1층 객실 : 24개
매가 30억 / 보증금 3억 / 월 2,000만 (상업지역)
③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내 3층 (2차선접 코너)
대지 : 496㎡ 건평 : 3,042㎡ 4/1층 객실 : 85개
급매가 18억 / 선불세 : 5,000만원 (상업지역)
반포강남공인 : 02-591-4948 / 한사장 : 010-9034-4948